

해방 후 이갑성(1889~1981)의 삶 재조명

허 동 현

(경희대학교)

국문초록

본고는 3·1운동 민족대표이자 일제 하 총 9년에 이르는 투옥생활을 한 이갑성이 해방 직전까지 일제에 투항하지 않고 저항을 계속한 희유(稀有)의 독립운동가로 칭송받을 자격이 충분함에도, 1965년 그의 광복회 회장 취임에 즈음해 제기되기 시작한 “친일 밀정설”로 인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가의 탈을 쓴 “친일파”로 질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본고에서는 다음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그를 친일파로 단죄하며 해방 후 그의 삶을 문제 삼은 르포성격의 신문기사와 잡지 기고문 및 친일파 관련 저술들은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당위성을 역설하는 학술연구자도 그 근거로 제시되는 증언과 자료에 대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음해성 자료에 지나지 않음을 구명하였다. 둘째, 그를 둘러싼 친일파로 논란은 냉전 붕괴 이후 전개된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세력관계와 이해관계가 반영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성립에 기여한 그의 역할과 오세창이 세상을 떠난 1953년 이후에는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한 생존자이자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광복회 회장으로 갖는 그의 상징적 의미 등이 이 두 정권의 역사적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기능하기에 그가 “친일밀정”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친일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를 기용한 두 정권의 반민족적 성격을 밝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물론 필자도 그가 이승만 “문민독재”와 박정희 “군사독재”에 일조한 정치가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변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신빙성이 결여된 음해성 자료를 엄밀한 사료비판 없이 사실로 선전하는 이면에는 “민족”과 “민중”이라는 거대담론에 입각한 역사인식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주제어

이갑성, 민족대표 33인, 3.1운동, 친일파, 민족주의

1. 서론

연당(研堂) 이갑성(李甲成)은 3·1운동으로 3년(1919~1922), 민립대학 설립운동으로 2년(1928~1930), 신간회 운동과 관련 해 상해 망명 시 피체 송환되어 1년(1937~1938), 홍업구락부 관련으로 7개월(1940), 그리고 상해에서의 독립운동 관련으로 11개월(1941)·8개월(1942)·4개월(1943)·3개월(1945) 등 총 2년 2개월, 모두 합해 9년여를 감옥에서 보냈다.¹⁾ 파쇼체제에 접어든 1930년대 이후 국내에서 독립운동이나 민족 해방운동을 전개한 이들 중 일제에 타협하거나 전향하지 않은 인물을 좌우를 막론하고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해방 직전까지 일제에 투항하지 않고 저항을 계속한 희유(稀有)의 독립운동가로 칭송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그가 1965년 광복회 회장 취임에 즈음해 제기되기 시작한 “친일 밀정설”로 인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가의 탈을 쓴 “친일파”로 질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²⁾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재생산되는 이갑성에 대한 “친일 밀정설”의 근거로 제시되는 증언과 자료들을 볼 때,³⁾ 이는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당위성을 역설하

1)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소장, 『이갑성 자필이력서』: 이갑성의 생애와 일제하의 활동에 관해서는 유준기, 『최연소 3·1운동 민족대표 이갑성』, 『한국근현대인물강의』(국학자료원, 2007), pp. 199~241 참조.

2) “친일민족설”에 대한 비판은 유준기, 위의 논문, pp. 226~237 참조.

3) 박만주, 『역사의 증언: 민족정기의 순수성은 보전돼야』, 『자유』, 1981년 3월호, pp. 21~33; 김행식 편저, 『20세기 사건으로 보는 조선민족 100년사 대관: 하』, pp. 55

는 학술연구자도 그 근거로 제시되는 증언과 자료에 대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음해성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⁴⁾ 사실 그는 냉전붕괴 이후에도 남의 국민과 북의 인민이 하나 되는 민족을 단위로 한 국민국가라는 근대기획의 완성과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는 한국사학계의 민족·민중주의 담론의 희생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세의 침략에 맞선 저항담론으로서의 민족·민중주의는 어찌 보면 개인에게는 외세와 마찬가지로 인간해방을 제한하는 억압기구이자 탄압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거대담론으로 다원적 시민사회를 사는 오늘의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일수도 있다. 오늘은 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에 자신들이 상상하는 세상에 정당성을 주기 위해 연역적으로 만들어진 도식적인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타자와 더불어 살기를 이야기 하는 시민의 눈으로 본 역사 쓰기가 더 없이 필요한 대라고 본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민사회는 한 데 뭉쳐 다니는 우중(愚衆)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적이며 각성된 개별주체로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본고는 식민지시대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이갑성이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대담론 “민족”과 “민중”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역사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봄으로써 신화화된 거대담론을 넘어 각성된 주체로서의 시민의 눈으로 본 역사상의 재정립이 필요성을 제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561 참조,

- 4) 임대식, 『신기남·김희선 부친이 친일명단에 왜 없냐고요?』, 『오마이뉴스』 2005년 9월 6일자,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78440 참조. “우리가 가장 신뢰한 자료는 일제가 남긴 문헌 기록이나 당대 자료다. 이러한 원칙은 독립유공자를 선정하는 데도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일제 기록이나 문헌자료가 그나마 신뢰도가 높은 데 비해 후대 기록이나 증언은 부정확하고 조작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이갑성을 비롯해,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밀정으로 지목되는 인물들이 적지 않지만 다수 증언만 있을 뿐 문헌 기록은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갑성도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 5) 민족·민중주의에 입각한 역사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줄고, 『통감부시기(1909~1910)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독립운동사연구』27(2006), pp. 68~71 참조.

2. 해방 후 정치활동

1919년 기독교계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 3·1운동을 이끈 이갑성은 출옥 후 중앙기독교청년회(YMCA) 이사(1926)·민립대학 설립기성회 중앙이사(1926)·홍업구락부 간사(1927)·신간회 중앙이사(1928) 등을 역임하며 민족주의 우파계열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⁶⁾ 특히 그가 관여한 홍업구락부는 이승만이 안창호의 수양동지회에 맞서기 위해 국내에 조직한 비밀결사로 미주지역에서 결성한 동지회의 국내 조직이었다.⁷⁾ 이갑성에 의하면 홍업구락부는 이승만에게 외교비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⁸⁾ 이처럼 이승만 계열에 속해있던 그는 해방 후 독립촉성회(獨立促成會) 회장(1945)·정당통일기성회 위원장(1946)·각정당 행동통일회 위원장(1946)·입법원 민선 입법의원(1947)·선거법 제정위원장(1948)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수립에 공헌하였으며, 이승만 정권에서는 2대 국회의원(1950~1954)으로 국회 전원(全院)위원장(1951)·국민회(國民會) 최고위원(1952)·자유당 정무부장(1953) 등을 역임하며 이승만 정권의 핵심세력으로 활동한 바 있었다.⁹⁾

그는 자유당 창당 이전인 1951년 5월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한 뒤 여당 역할을 하던 신정동지회의 지명으로 제2대 부통령 선거에 나서 야당 측 후보인 김성수에게 78표 대 75표로 패배하였지만, 3표의 표차가 말해주듯 나름대로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¹⁰⁾ 특히 그는 자유당 창당과정

6) 『이갑성 자필이력서』; 유준기, 앞의 논문, pp. 210~226 참조.

7)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pp. 344~345. 정병준에 의하면 이승만과 국내 조직과의 관계가 “조직적·집단적이고 정치적·이념적인 결합과 상호작용으로 확대”되었으며, “1920년대 초중반 국내 민족주의 세력이 추구했던 실력양성론이 하와이의 이승만으로부터 공명을 받고 국내와 하와이가 결합되는 과정은, 국내와 미주라는 지역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정치·사상적 지향이 동일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병준, 같은 책, p. 302.

8) 『이갑성 자필이력서』. “홍업구락부를 조직하고 재미 이승만 박사에게 외교비 조달”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9) 『이갑성 자필이력서』.

10) 서병조, 『정치사의 현장증언 제1공화국』, 중화출판사, 1981, p. 306;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pp.123~124. 5월 17일에 열린 1차 투표에

에서 이승만을 상징적인 국가원수에 머물게 하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원내자유당이 1951년 12월 창당될 때 김동성과 함께 중앙위원회 부의장으로 추대되었지만, 이승만이 총재로 있는 원외자유당으로의 합동을 주장하는 “합동파(삼우장파)”를 이끌며 자유당 창당의 공신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¹¹⁾

당시 그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성망과 일제 하 독립운동 경력 및 해방 후 정치활동을 기반으로 여당 측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만큼 정치적 기반을 닦은 바 있었다. 이 점은 아래의 인용문에 잘 나타난다.

그는 세상이 알다시피 기미독립선언서에 불후의 방명(芳名)이 기록되어 있는 33인중의 한사람으로 저명하다. 그가 한 때 원내각파로부터 수많은 정치적 유혹의 추파를 받은 것은 그의 방명이 영향하는바 컸다고 할 수 있을게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정치적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33인의 정화(精華)인 그의 3·1운동 투쟁사를 여기에 읊기자면 간단하게 해지지 않을 것 같기에 그 당시 그의 운동원으로서 맡은 직책만을 기록하여 두기로 한다. 말할 것도 없이 학생층을 포함한 청년의 지도 및 연락이 첫 임무이었고 경상남북도 일대의 비밀운동원 획득, 또 상해와의 연결, 그리고 주한외국공사관과의 연결을 떠맡고 이 민족적 봉기의 날을 과감히 지도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었던 것이다. 이후 일제의 요시찰인이 된 그는 8·15까지 형무소 생활하기를 무려 4회요 그 연수(年數)를 합하면 이십여년[sic]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바 있다. 해방이후의 그의 정치적 위치는 정당통일을 위한 각정당행동통일위원회(各政黨行動統一委員會)를 결성하는 등 민족분열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굳건히 미(扞)는 것으로 일관하여왔다. 반탁의 눈부신 승리가 그의 이런 노력으로 결실 맺어 주었고 민족 진용의 단결은 수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입법의원 민선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국정부가 수립되자 그는 5·30 선거에 대구서 출마 10만 선량(選良)으로 국회의사당에 데뷔하였다. 따라서 비록 낙선은 되었을망정 부통령에 입후보할 만큼 그의 정치적 기반은 확고부동한

서 김성수가 65표, 이갑성이 53표, 함태영이 17표를 얻어 과반수가 없었던 관계로 2차 투표에 들어갔고 여기서도 재석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에 들어갔고 그 결과 3표차의 박빙의 승부를 갈랐다.

11) 문정인·류상영, 『자유당과 경무대』, 문정인·김세중 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pp. 18~24.

위치에 다다르고 말았다.¹²⁾

기미 3·1 독립선언서에 그는 33인의 일원으로 만대에 빛날 서명날인을 마치고 일제관헌에게 피체되어 4년간의 옥중생활을 하게 되었다. …1925년에는 민립대학설비기성회 중앙이사로 피임되어 각지에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듬해에는 흥업구락부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동구락부는 비밀로 재미 이승만 박사의 외교비 조달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었다. 1927년 봄에 그는 세브란스 간호학교 부교장으로 취임하였고 그해 여름 민립대 기성(既成) 강연자로 순회 중 평남 성천(成川)군에서 그는 관헌의 손에 검거되어 2년간 수형을 하였다. 그가 1930년에 출옥하자 경성공업주식회사 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익년에 신간회 사건으로 상해에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1937년 그는 또 상해에서 일관의 손에 체포되어 본국으로 압송, 2년간 복역하였다. 출옥하던 그 해에 그는 또다시 흥업구락부사건이 발각되어 7개월간 재옥(在獄)하게 되었다. 소위 특사령으로 7개월만에 석방된 것이었다. 익년 또 다시 경북도경찰부에 그는 구속되어 재상해(在上海) 시의 독립운동사건으로 3년 인도를 받고 복역하였다. 1년후 그는 가출옥 처분으로 석방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아 지긋지긋한 그의 감옥생활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종언을 고하였고 천지가 개벽된 듯 자유조국으로 해방되어 애국지사 이갑성선생의 일가에는 춘광(春光)이 내복(來復)한 것이었다. 58세 노지사의 반생은 그야말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제물로서 반생이었다. 이제는 암흑에서 광명으로, 비애에서 환희로, 고난에서 영화로, 이갑성 선생의 생활사에는 신천지가 전개하는 것이었다. 거인 이갑성 응(翁)은 3천만 겨레의 존경을 받으면서 33인의 빛나는 표본으로 전 국민 앞에 등장한바 되었다. 해방직후 그는 정당통일기성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였고 익춘(翌春)에는 독립촉성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1947년 그는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민선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익년 5·10 선거에는 선거법 제정의원으로 피선되었다. 1950년 5·30 선거에는 대구에서 출마하여 압도적 다수표로써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국회 전원(全院)위원장에 그는 피임되었고 제2대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그는 차점자로서 영예를 얻게 되었다. 65세의 노익장하시는 이갑성 응에게 더욱 영광 있으라!!¹³⁾

12) 한철영, 「33인의 한사람 이갑성」, 『한국의 인물 第1選·50人集』, 문화출판사, 1952, pp. 37~39

13) 김여산, 「이갑성 선생 : 애국일념으로 송죽같은 거인적 생애」, 『차기대통령은 누가

그는 3대 국회의원 낙선 이후 이기붕 중심의 후계체제가 가동되면서 이렇다 할 정치활동을 보이지 못했지만,¹⁴⁾ 이승만 정권 말기의 혼란상을 비판하는 글을 『사상계』에 기고하는 등 사회 원로로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⁵⁾ 70세를 바라보는 만년의 노 정객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195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독립 운동에 헌신한 애국자라는 호의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3·1운동정신의 민족정기가 씨의 가슴속에서 피 끓고 있다. 그 생생한 기혼(氣魂)은 지금도 조금치도 꺾이지 않고 유유히 정치활동에 작용되고 반영되어서 민족의 장래의 복지를 약속하고 있다. 기미 3·1만세운동의 33인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 노혁명가의 애국지성은 국가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민족의 자랑이 될 것이다. …원내생활에 있어서는 삼우장(三友莊) 소속의원의 영도자로서 위국위민의 일념으로서 순수한 투쟁을 전개하여 국난타개의 길을 촉진하였으며 의정단상에 있어서는 항상 국책을 좌우하는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예리한 발언으로 그 그릇된 점을 시정하고 향상의 길을 열어준다. 씨의 언동에는 허실이 없다. 까닭에 의원들은 씨를 존앙(尊仰)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 노숙한 정치가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일찍이 기미운동 33인의 일인(一人)으로서 일본관헌에 피체되어 4[sic]년간의 옥중생활을 하였으며 그 후에 흥업구락부의 간사로서 독립의 전취(戰取)를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하면서 당시 재미 이승만 박사의 외교비조달을 하는 한편 역시 독립운동기관인 신간회 중앙이사로 활동하다가 일헌(日憲)에 탄로되어 상해에 망명하여 갖은 고초를 겪으며 일제에 항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피검되어 본국에 압송되어 3년간의 징역형을 받았던 그 후 출옥하여서도 그 이념을 저버림 없이 흥업구락부를 중심

될가』, 협동문화사, 1952, pp. 32~34. 이 소책자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거명된 인물은 이승만·이시영·김성수·신익희·이갑성·이범석·장면이었다.

14) 1953년말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3선개헌”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치러진 1954년 제3대 총선(5·20선거)에서 이갑성은 낙선했다. 이는 『동아일보』1954년 5월 22일자 참조. “五個條 헌법개정안을 내걸고 이를 통과시켰다는 공약 하에서 立候補한 자유당의 公認候補者가 果然 어떠한 비율의 當選을 보게 될지는 아직 地方報告의 未着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여당인 자유당의 指導權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던 李甲成 裴恩希 等 간부급 人物이 落選되는 반면에 野黨에서는 申翼熙 金度演을 비롯하여 趙炳玉 金俊淵 尹潛善 趙在千 徐東辰 等 民國黨 지도층과 아울러 鄭成太 郭尙勳 錢鎮漢 等 야당투사들이 당선을 보게 됐다.”

15) 이갑성, 『우리는 사회악에 항쟁한다』, 『사상계』39, 1956. 10, pp. 257~260.

으로 투쟁을 계속하여 오다가 발각되어서 또다시 피검 7개월간의 투옥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눈물겨운 항쟁의 역사는 씨의 투쟁목표를 관철하기 전에는 조금치도 굴할 줄 몰랐던 것이다. 다시 대구경찰서에 피체되어 3년간의 쓰라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해방과 함께 씨는 간난(艱難) 많았던 압정에서 벗어나 함인축분(含忍蓄憤)의 울분을 씻어버리고 쾌연히 이 나라의 국정에 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생을 조국광복에 헌신한 씨의 신념은 오늘날 세상에 주지된 바와 같이 참다운 민주정치 지도자로서 민권의 신장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 각 기관을 편달 선도하는 한편 국초(國礎)의 대계를 구축하는 대업에 게으름이 없었으며 착실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¹⁶⁾

국토는 양단된 채 민족의 비극은 그칠 줄 모르고 국민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오늘날 우리 조국은 진정한 애국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거리에는 입으로만 애국을 부르짖는 사이비 애국자 사태가 나서 더욱 세태는 어지러워가니 뜻있는 사람들의 단장(斷腸)의 통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한심스러운 현실 속에서 홀로 핀 백합화와도 같이 청초하고 송고한 자태를 보여주는 분이 바로 3·1운동의 민족대표였던 이갑성씨다. 잃어버린 조국을 찾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일제와 투쟁하여 승리를 쟁취한 그의 영웅적 활동은 청사(靑史)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은 민족의 영웅인 그에게 무엇으로 보답하였는가? 민족정기는 땅에 떨어지고 조국의 장래에 암영이 깃들고 있는 오늘날 그의 재기를 요망하는 소리 점고(漸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듣건대 그는 차기 민의원 선거에 대구에서 재출마한다니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은 틀림없다.¹⁷⁾

이갑성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의 독립운동가 포상 및 영입 작업에 응해 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¹⁸⁾ 군사 쿠데타 1년 뒤인 1962년 그는 3·1운동

16) 우인기 등편, 『이갑성』, 『제2대 국화를 움직였던 인물』, 국회타임스, 1954, p. 9.

17) 박태진 편, 『현대 한국정치가 91인집』(신조사, 1957), p. 62.

18) 1962년 이갑성은 군사쿠데타를 긍정하는 글을 썼다. “원컨대 우리 전국민은 모두 합심하여 이 군사혁명에 머리를 돌려 과거의 그릇된 행동을 씻고 일어나 군사혁명정부가 완전히 성공하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기를 깊이 기원하는 바이다. 만약 이번 혁명정부가 실패한다면 이 민족의 운명은 최대의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은 엄연한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점을 거듭 다짐하고 싶다.” 이갑성, 『3·1운동과 나』, 『최고회의보』 6(1962.3); 안성균, 『이갑성: 독립유공자로 훈장 받은 친일밀정』, 『무크 · 친일문제』

민족대표로 건국공로 훈장을 받았으며, 이후 헌법 개정 국민투표관리 위원장(1962)과 공화당 창당 발기위원(1963)으로 박정희 정권의 창출에 기여하였다.¹⁹⁾ 이후 그는 공화당총재 고문(1963~1967) 광복회 초대회장(1965~1967)과 2대 회장(1967~1970)을 역임하였다.

3. “친일 밀정설”의 제기와 유포 경위

“친일 밀정설”은 이갑성이 초대 광복회 회장에 오르기 직전인 1964년 12월 27일자 『한국일보』와 1965년 1월 14일과 16일자 『동아일보』의 지면을 통해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그가 제2대 광복회장에 피선된 직후인 1967년 5월 11일자 『대한신문』 광고란에 “광복회 비상총회 회원 일동” 명의로 실린 「변절 및 민족반역자 이갑성의 죄상 일부를 공개함」이란 성명서에 의해 확대·유포되었다.²⁰⁾ 이 광고는 조경한(趙擎韓)과 임의탁(任義鐸)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창씨개명, 상해 체류시 밀정설, 미쓰비시(三菱)회사 만주 신경(新京) 소장 설, 그리고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의 촉탁설 등을 근거로 이갑성이 “민족반역자”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맞서 광복회는 익일자 『대한신문』을 통해 반박문을 신는 등 공방이 법정으로까지 번져 조경한 등이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을 법정에서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조경한 등이 이갑성을 음해하기 위해 제시했던 자료들은 「岩本正一(創氏改名)의 附日 諸證據資料」라는 제하에 『자유』 1981년 3월호에 다시 실려 다시 한 번 이갑성을 친일변절자로 몰아세운 바 있다.

이러한 이갑성 “민족반역자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사료는 이미 유준기와 김행식에 의해 신뢰성이 결여된 음해임이 입증된 바 있기에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다.²¹⁾ 다만 조경한 등이 이갑성을 음해한 주된 이유가 광복회에 대한 주도

연구』2(가람기획, 1995), p. 196에서 재인용.

19) 「이갑성 자필이력서」.

20) 관련 신문 기사와 성명서는 김행식 편저, 앞의 책, pp. 555~561에 수록되어 있다.

21) 유준기, 앞의 논문, pp. 226~238; 김행식, 앞의 책, pp. 562~568 참조. 특히 2005년 3월 1일 방영된 SBS 시사보도 프로그램 “뉴스추적”에서 이갑성 “친일 밀정”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되어 왔던 미쓰비시 출장소장 등의 명단에 이갑성이란 이름은 없

권 다툼에서 밀린 이들의 개인감정에서 촉발된 것일 수도 있지만,²²⁾ 임시정부 출신들의 민족대표 출신인 이갑성에 대해 갖고 있던 반감과 5·16 이후 군사정부나 1980년 신군부가 만든 제3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 3·1운동에 대한 계승의식만 보이고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표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조경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명의로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된 1980년 10월 이후 언론사에 배포한 「임시정부와 법통계승에 관하여」라는 성명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²³⁾

돌아보면 3·1운동이 임시정부의 진원(震源)이라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근원이니, 독립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천양(闡揚)한 3·1운동이 있으므로 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명분이 있고, 정부형태를 갖추어 대외의 주체로 활동한 임시정부가 있었으므로 해서 현재의 민국정부가 수립되어 간단없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1948년 7월 7일에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기미(己未)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족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라고 하여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48년의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을 제1공화국으로 인정하고 그를 ‘계승’하여 ‘재건’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5·16 혁명정부에 이르러 대한민국 임

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22) 이에 관해서는 특히 유족 측 『서울신문』 1999년 3월 1일자에 실린 “민족대표 33인 중 1인 李甲成”편에서 다시 제기된 “친일밀정”설을 반박하는 유족 이재현의 동신문 3월 10일자 「반론문」참고. “이웅에 대한 이러한 음해성 혐담의 연원은 1960년대 초부터다. 독립운동 유공자 모임인 ‘광복회’ 설립과정에서 튀어나온 이 문제는 이웅이 그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급기야는 경쟁자간의 성명서 전쟁으로까지 비약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광복회 회장으로는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되는 일제밀정문제 등을 상대측에서 조작 유포시킨 것이었다. 그 후 1967년에 2대 회장으로 재 선임되자 상대측에서 이 문제를 재 제기하여 결국은 법정까지 비화했었다. 당시 서울지검에서 조사한 결과, 그러한 혐의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종료했다. …지난 30여년 간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이웅은 물론 그 가족 누구도 어떠한 친일 행적도 수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순히 해방 후 단체장 선거 때 상대측이 선거용으로 주장한 혐의만이 있을 뿐이다.”

23) 조경환, 『백강 회고록』, 한국종교협의회, 1990, pp. 393~394 참조.

시정부의 정통성 부분을 삭제하고 3·1운동의 독립정신과 4·19 의거, 5·16 혁명의 이념만을 부각시켰으니 이는 5·16군사정권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정체를 계승할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처사였고, 그 뒤 유신헌법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만든 반민주적 헌법으로서 5·16헌법 전문을 그대로 답습했다. ‘5공’의 용어는 5·17정권[sic]이 1980년 제8차 개헌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라고 헌데서 알 수 있다. 5·16정권과 맥을 같이하는 처사로서 오늘의 건국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고 5·17정권을 제5공화국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임정계열 독립운동자들의 민족대표 출신 광복회장에 대한 반감과 임정 계승의식을 보이지 않는 군사정부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이갑성에 대한 음해성 자료는 친일문제 연구자들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확대·재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임종국은 1988년과 1990년에 “이갑성은 일제의 밀정설이 있는 사람이다”라거나 “이갑성은 일본군 점령하의 상해에서 밀정을 했다는 설이 끈질기게 따라 다니는 사람”이라고 “친일 밀정설”을 다시 제기한 후,²⁴⁾ 연이어 출간된 친일파 관련 서적들을 통해 확대·재생산되기 시작하였다.²⁵⁾ 특히 1993년 5월 12일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제기한 친일혐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면 재심사 요구에 따라 보훈처가 같은 날 공개한 대상자 명단 속에 이갑성이 포함되면서 “친일 밀정”설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다.

친일 혐의 두드러진 8명에 초점대한국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훈포장을 받았던 일부 인사에 대해 정부가 친일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심사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방 이래 지금까지 미뤄져 왔던 친일잔재 청산의 계기로 삼아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더욱 굳게 할

24) 임종국, 『현대공론』, 1988.8, p. 238; ———, 『친일자들의 화려한 변신』, 『한배달』 1990년 봄, p. 61.

25) 이갑성 “친일 밀정”설을 제기하고 있는 책은 다음과 같다. 김삼웅·정운현 공저, 『친일파』Ⅱ, 학민사, 1992; 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2, 청년사, 1994; 안성균, 앞의 책(1995).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가 이런 작업에 나선 것 역시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가 올해 초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과제 중 하나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훈처가 이달 초 국회 보사위에 낸 자료에 따르면, ... 이갑성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사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총리에 지명되기도 했고 초대 광복회장을 지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상해에서 이와모토로 창씨개명한 뒤 일본의 밀정 노릇을 했다는 증언이 당시 임정요인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²⁶⁾

이러한 “친일 밀정”설은 반민족문제연구소가 1994년 『청산하지 못한 역사』라는 3권짜리 친일파관련 책을 펴내면서 다시 한 번 세상의 이목을 끌었으며,²⁷⁾ 200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생산되고 있다.²⁸⁾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1960년대에 광복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신빙성이 없는 음해성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대표적 예로 정운현이 1999년 3월 1일 『서울신문』에 기고한 다음의 글을 꼽을 수 있다.

지난 93년 5월 국가보훈처는 역대 독립유공자 가운데 재심사 대상자 8명의 명단을 국회 비공개회의에서 공개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3·1의거’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사람이었던 이갑성이 포함돼 있었다. 그에게 씌어진 혐의는 ‘밀정’으로 요셋말로 하면 일제의 스파이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광복회장까지 역임하면서 81년 사망 당시 사회장이 치러졌던 그가 ‘변절자’였다는 의혹은 62년 이래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그 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통해 그의 친일혐의를 추적해보자. ... 한편 이갑성에 대한 ‘친일논쟁’은 62년 그가 건국훈장을 수훈할 무렵 불거져 나와 65년 광복회장에 취임한 직후, 그리고 81년

26) 『한겨레』 1993년 7월 26일자. 이 밖에도 『세계일보』 1993년 6월 1일자; 『서울신문』 1993년 7월 9일자; 『국민일보』 1993년 7월 9일자; 『한국일보』 1993년 7월 10일자; 『한겨레』 1993년 7월 10일자 참조.

27) “이 책은 이밖에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중 한 사람인 이갑성씨는 창씨개명까지 한 일제밀정이라고 폭로했고...” 『세계일보』 1994년 2월 27일자;

28) 『서울신문』 1998년 5월 30일자; 『서울신문』 1998년 8월 21일자; 『경향신문』 1999년 3월 12일자; 『매일경제』 1999년 8월 14일자; 『경향신문』 2003년 2월 22일자; 『한겨레』 2003년 11월 10일자; 『경향신문』 2004년 2월 23일자; 『문화일보』 2004년 8월 21일자; 『시민의 신문』 2005년 5월 29일자; 『한국일보』 2006년 3월 2일자;

그의 사망 직후 한 잡지에서 그가 일제 때 사용하였던 명함을 공개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그의 친일경력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한 사람은 임시정부 서무국장 출신의 임의탁(林義鐸·건국훈장 독립장)씨. 그는 ‘대한일보’(67.5.11)에 게재한 광복회비상총회 명의의 ‘성명서’에서 민족대표 33인중의 한사람으로 출선하여 창씨개명을 한 점, 상해에서 임정에는 출입을 못하고 상해 조선인 거류민회 회장이자 유명한 친일파인 이갑녕(李甲寧)만 접촉한 사실, 총독부 산업국장의 주선으로 일본 미쯔비시(三菱)회사 신경(新京)출장소장으로 임명된 사실, 총독부 경무국장 마루야마(丸山鶴吉)의 촉탁을 지냈다는 주장 등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하였다.

또 유관순(柳寬順)열사의 오빠로 3·1의거에 참여했던 유우석(柳愚錫·건국훈장 애국장)씨는 이갑성이 “일제말기 일본인도 하기 어려운 경성공업사(군사공업)의 중역을 지냈다”고 증언하였다. 두 사람 모두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은 애국지사들로 이갑성의 친일문제와 관련,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가운데는 같이 활동했던 동지들의 증언만으로도 훈장을 받은 사례도 있다. 독립운동가들의 증언은 사료(史料)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임·유씨의 증언에 대해 이갑성은 반박성명을 통해 두 사람의 증언내용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보면 이갑성의 반박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창씨문제. 이갑성은 자신이 이와모토(岩本正一)로 창씨개명한 사실(호적서류 참조)을 두고 당시 자신은 해외에 있어서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씨는 호주(戶主)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호주였던 그가 자신의 창씨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 33인 가운데 그를 포함해 정춘수(鄭春洙, 禾谷春洙), 최린(崔麟, 佳山麟)등 3명이 창씨개명을 했다.

다음으로 이갑성이 미쯔비시 회사의 신경출장소장을 지냈다는 주장.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나 그가 ‘주식회사 일만산업공사(日滿産業公司) 전무취체역’을 지낸 사실은 확인됐다. 또 이갑성이 상해 임정에 출입을 못했다는 주장. 이에 대해 임정 총무과장 출신 K씨는 “당시 이갑성은 임정요인과 교류가 없었으며 임정 청사에 출입을 못했다”고 증언한바 있다. 독립운동가 김성수(金聖壽·건국훈장 독립장)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 이갑성이 상해에서 제중(濟衆)약국을 경영하면서 밀정행위를 했다고 사망 직전에 증언한 바 있는데 이갑성이 약국을 했을 가능성은 크다. 우선 그가 약학을 공부했고, 서대문형무소 수감시절 일경이 작성한 자료에 그가 상해로 도피하여 약종상(藥種商)을

했다고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그가 경무국장 마루야마의 촉탁을 지냈다는 주장도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이밖에도 그가 친일을 했다는 증언은 수없이 많다. 독립운동가 사회에서는 그의 ‘친일’이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다. 다만 그가 생전에 역대 정치권력과 깊은 유대를 가지고 독립운동가 사회의 상징적인 인물로 행세해왔기 때문에 나서서 언급하기를 꺼려왔을 뿐이라는 것. 해방 직후부터 정치권에서 활동하면서 한 때 이승만을 추종하던 그는 1961년 5·16이 발생하자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크게 염려하던 군인들에 의한 군사혁명이 일어난 것은 다행한 일로...군사혁명 정부가 완전히 성공하도록 물심양면으로 깊이 협조해 주기를...’ 호소하였다.

이듬해 62년 그는 해방 후 첫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을 받았으며 공화당 창당과정에서 발기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65년에는 초대 광복회장에 취임하였고 이어 3·1동지회 고문, 이준열사 기념사업회 총재 등 민족단체의 대표적 인물로 활동하였다. 또 63년 그는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도 참여하였는데 당시 이름만 써내면 훈장을 주었다는, 소위 ‘백지사건(白紙事件)’에 그가 깊이 관련돼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갑성의 일제하 행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다. 33인 출신으로 일제당국에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어떻게 상해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또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37년 국내에 압송돼 와서 1년 만에 가출옥한 배경이나 이후로도 수차례 투옥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33인중 최후의 생존자로 매년 3·1절이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던 이갑성은 81년 3월 타계 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의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진실규명 차원에서 그의 행적에 관한 자료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르포성격의 신문기사와 잡지 기고문 및 친일파 관련 저술들이 그를 친일파로 단죄하며 해방 후 그의 삶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냉전 붕괴 이후 전개되는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세력관계와 이해관계가 반영된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성립에 기여한 그의 역할, 특히 그가 오세창이 세상을 떠난 1953년 이후에는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

한 생존자이자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광복회 회장으로 갖는 상징적 의미 등이 이 두 정권의 역사적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메타로 기능하기에 그가 “친일밀정”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친일행위가 사실이라면 그를 기용한 두 정권의 반민족적 성격을 밝히는 움직임일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임정계열 독립운동자들의 민족대표 출신 광복회장에 대한 반감과 임정 계승의식을 보이지 않는 군사정부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이갑성에 대한 음해성 자료는 냉전 붕괴 이후 1990년대 들어 미국의 제국주의적 측면과 남한의 반동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상대적인 민족정통성 부여하는 수정주의사관에 영향을 받은 민족·민중주의 사가들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이갑성 친일파설이 재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민족·민중주의 시각으로 한국현대사를 볼 때 외세에 기생해 민중을 착취하고 친일파를 기용한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반민중·반민족 정권으로, 그리고 이갑성은 이 두 정권의 반민중·반민중성을 웅변하는 대표적 인물로 비칠 뿐이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의 공과를 논함에 있어 아직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의 평가는 호오(好惡)와 긍부(肯否)가 엇갈리고 있기에 이 두 정권과 관련된 이갑성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 물론 필자도 그가 이승만 “문민독재”와 박정희 “군사독재”에 일조한 정치가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변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신빙성이 결여된 음해성 자료를 엄밀한 사료비판 없이 사실로 선전함으로써 한 개인이 식민지 시대에 일생을 바쳐 쌓아올린 불요불굴의 항일 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라는 평판을 무화시키는 것은 서로 생각과 지향과 이해를 달리 하는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도래에 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려 한다. 진정 이 세상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힘은 나와 다른 꿈을 꾸는 타자들을 배제하고 부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관용하는 데서 나온다. 그렇다면 자신과 다른 꿈을 꾸던 적대세력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도 정파적 이해를 넘어 가치중립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갑성은 “민족”과 “민중”이라는 거대담론에 입각한 역사인식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만들어낸 희생자일 뿐이다. 냉전시대 “민족”과

“민중”이란 거대담론은 개인을 억압하는 수사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거대담론을 넘어 주체로 우뚝 선 개인, 즉 시민의 눈으로 우리 역사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

❖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1999년 3월 12일자, 2003년 2월 22일자. 2004년 2월 23일자.
『국민일보』 1993년 7월 9일자.
김삼웅·정운현 공저, 『친일파』 II, 학민사, 1992.
김여산, 『이갑성 선생 : 애국일념으로 송죽같은 거인적 생애』, 『차기대통령은 누가 될가』, 협동문화사, 1952,
김행식 편저, 『20세기 사건으로 보는 조선민족 100년사 대관: 하』, 한민족독립정신연구회, 2005.
『동아일보』 1954년 5월 22일자
『매일경제』 1999년 8월 14일자.
문정인·류상영, 『자유당과 경무대』, 문정인·김세중 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문화일보』 2004년 8월 21일자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소장, 『이갑성 자필이력서』
박만주, 『역사의 증언: 민족정기의 순수성은 보전돼야』, 『자유』, 1981년 3월호.
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2, 청년사, 1994.
박태진 편, 『현대 한국정치가 91인집』, 신조사, 1957.
서병조, 『정치사의 현장증언 제1공화국』, 중화출판사, 1981.
『서울신문』 1993년 7월 9일자, 1998년 5월 30일자, 1998년 8월 21일자. 1999년 3월 1일자.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세계일보』 1993년 6월 1일자. 1994년 2월 27일자.
『시민의 신문』 2005년 5월 29일자.
안성균, 『이갑성: 독립유공자로 훈장 받은 친일밀정』, 『무크·친일문제연구』 2, 가람기

획, 1995.

- 우인기 등편, 『이갑성』, 『제2대 국화를 움직였던 인물』, 국회타임스, 1954.
- 유준기, 『3·1운동과 기독교계 민족대표의 활동』 별지, 『3·1독립운동 86주년 기념 제3회 “민족대표 33인의 재조명” 학술회의 발표논문집』(2005. 2. 28).
- 이갑성, 『우리는 사회악에 항쟁한다』, 『사상계』 39, 1956년 10월호.
- _____, 『3·1운동과 나』, 『최고회의보』 6, 1962년 3월호
- 임대식, 『신기남·김희선 부친이 친일명단에 왜 없냐고요?』, 『오마이뉴스』 2005년 9월 6일자.

임종국, 『현대공론』, 1988년 8월호

_____, 『친일자들의 화려한 변신』, 『한배달』 1990년 봄.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조경한, 『백강 회고록』, 한국종교협의회, 1990.

『한겨레』 1993년 7월 10일자, 1993년 7월 26일자, 2003년 11월 10일자.

『한국일보』 1993년 7월 10일자, 2006년 3월 2일자.

한철영, 『33인의 한사람 이갑성』, 『한국의 인물 第1選·50人集』, 문화출판사, 1952.

❖ ABSTRACT

The Reconsideration of Lee Gap Sung's Life after Independence of Korea

Huh Dong Hyun

This paper examines why Lee Gap Sung has been chastised as "a Japanese collaborator" by striking a secret deal to be a Japanese spy under the disguise of an independence fighter, which was suggested by the time he was about to inaugurate as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Independence Fighters in 1965. However, he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s i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jailed for nine years under the Japanese rule, and continued to resist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ism to the end. Accordingly, it was found out that 1) there are serious problems in credibility of newspaper articles, journal writings, and works on Japanese collaborators, which claimed that he was a Japanese collaborator and problematized his life after the Liberation. Even scholars who advocate the historical justification of liquidating the past crimes of the Japanese collaborators attest that those reportages are doubtful; 2) It appears that the controversy over his being a Japanese collaborator stemmed from the conflict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roups after the collapse of the era of the Cold War. Especially, given his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mes of both Rhee Seung Man and Park Jung Hee, his status as the only survivor among the 33 representatives after Oh Se Chang's death in 1953, and as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Independence Fighters, which represents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line with nationalism, he was a symbolic barometer to measure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two regimes. Thus, he appeared to be constantly accused of being "a Japanese spy". That is because

his being a Japanese collaborator would be firm evidence that the two regimes which appointed him as a ranking individual were anti-nationalistic governments; 3) However, the researcher does not have any intention to defend Lee Gap Sung who made a negative influence on democracy in Korea as a politician who contributed to Rhee's civil authoritarianism and Park's military authoritarianism. Instead, it is to reveal that the very reasons to propagandize the data against Lee with no credibility and critical analysis are due to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based on the master discourse of “nationalism” and “the populace” and the groups who want to take advantage of such confrontations.

Key Words

Lee Gap Sung, Japanese collaborator, Representatives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Nationalism

논문접수일: 2008. 4. 18.

심사완료일: 2008. 5. 20.

게재확정일: 2008. 6. 13.